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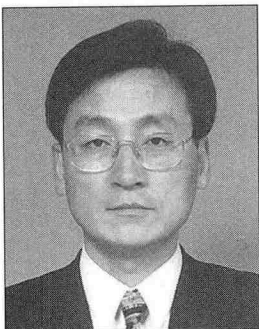
포커스-e제품

# 멀티빔 레이저마킹기 세계 최초 개발 성공

레이저장비 전문업체 (주)이오테크닉스

세계 반도체 레이저마킹기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오테크닉스(대표·성규동)가 이번에는 장비 한 대에서 최대 4개의 레이저 빔을 동시 분사할 수 있는 멀티빔 레이저 마킹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다시 한번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 회사는 1년간의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탄생한 멀티빔 레이저마킹기를 통해 반도체 이외에 휴대전화 등 일반소비재로 확대 적용하는 등 기존 반도체 시장에 이어 범용 마킹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예정이다.

취재 | 박지연 기자 |



이오테크닉스 성동규 대표이사

이오테크닉스가 세계 최초로 멀티빔 레이저 마킹장비 2종(모델명 : SY4024 / SFL2224)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레이저 마킹기는 반도체나 부품 등의 표면에 글자나 로고 등을 레이저로 새겨 넣는 장비로서 반도체 외에 최근에는 휴대폰 등 그 활용범위

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현재 상용화된 레이저 마킹기는 한 대에서 2개의 레이저 빔을 생성해 내는 것이 최대이나 이번에 이오테크닉스에서 개발한 멀티빔 레이저 마킹기는 장비 한 대에서 최대 4개의 레이저 빔을 동시에 생성해낸다. 따라서 한대로 기존 방식보다 2~4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존에 PCB기판에 구멍을 뚫는 기능을 갖춘 멀티빔 레이저가 개발된 적은 있으나 더욱 정교한 작업이 요구되는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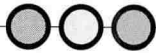
킹 레이저가 멀티빔으로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신제품은 초당 최대 4000자를 마킹할 수 있어 기존의 마킹기 보다 속도가 최대 8배나 빠르다. 또 마킹기 두 대 이상이 해야 할 일을 한 대가 할 수 있어 공간 효율성도 높다. 운영 인력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감안하면 전체 운영비가 30%이상 절감된다.

이오테크닉스는 연간 1000억 원 대로 추산되는 반도체 레이저마킹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점유율 1위 업체다.

이오테크닉스는 이번에 개발한 멀티빔 레이저기기로 반도체 마킹 분야외에 핸드폰·자동차·각종 전자부품·식품용 용기 표기 등 범용 레이저마킹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범용 레이저 마킹 시장은 연간 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반도체 레이저 마킹기기는 범용 레이저 마킹기기에 비해 제작원가가 높다. 그러나 멀티빔으로 개발된 레이저 마킹기는 효율성이 그만큼 높아 범용 레이저 시장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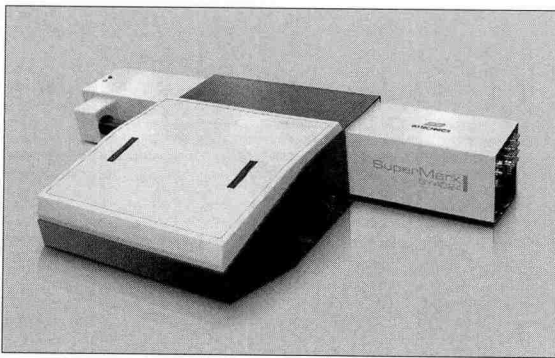
성규동 사장은 “이번 멀티빔 개발로 그간 반도체 마킹 분



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범용 레이저마킹 시장에 이오테크닉스가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매년 6%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 세계 범용 레이저마킹 시장의 한 축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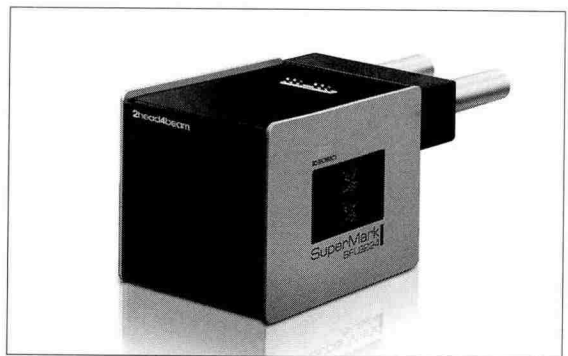
한편, 멀티빔 마킹기는 지난 5월 8일 열린 싱가포르 반도체 전시회를 통해 전 세계에 첫 선을 보이면서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 (주)이오테크닉스의 멀티빔 레이저마킹기 신제품 2종



**SY4024**

1개의 레이저로 4개의 레이저 빔을 구현한 4beam YAG 레이저 마킹기. 기존 레이저 마킹기에 비해 2배 이상의 가공속도, 생산성 및 비용절감 효과 외에도, 레이저 빔을 조정하는 스캐너가 4개나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스캐너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부품 교체 없이 공정을 완성할 수 있다.



**SFL2224**

Fiber Laser를 사용. 가공속도,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 효과 외에, 한 대의 마킹기로 2가지의 서로 다른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동시에 마킹할 수 있다.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한 자재 등에 효율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 (주)이오테크닉스, 삶과 꿈 싱어즈와 매칭펀드 체결

(주)이오테크닉스(대표·성규동)가 음악단체인 '삶과 꿈 챔버오페라싱어즈'와 예술지원을 위한 매칭펀드를 맺기로 하고 지난 5월 15일 서울 장교동 삶과 꿈 연습실에서 신갑순 대표와 함께 조인식을 체결했다.

이오테크닉스는 앞으로 삶과 꿈 챔버오페라 싱어즈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을 이용해 공연에 사용되는 레이저영상도 지원하기로 했다. 삶과 꿈 측은 공연과 문화행사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고 직원들의 공연관람을 통한 문화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음악감상법 강의를 계획하고 있다.

성규동 사장은 “매칭펀드를 통해 문화예술단체와 결연을 맺어 기쁨이 두 배가 됐다”며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해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시작된 한국메세나협회의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에는 총 7개의 기업과 예술단체가 결연을 맺었다.



▶ 이오테크닉스의 성규동 사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5월 15일 서울 장교동 삶과꿈 연습실에서 삶과꿈 챔버오페라싱어즈 신갑순 대표와 함께 조인식을 갖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